

대한민국 식량 공급 · 식품 안전을 지키는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재단 2022년도 연보





[목 차]

• 이사장 인사말	02
• 임원 및 직원 명단	03
• 2022년도 사업내용	05
– 이사회 개최	
– 연구사업	
– 학술회의	
– 저술 출판사업	
• 2022년도 재무보고 (2022년 12월 31일 기준)	10
• 2023년도 사업계획	11
• 2023년도 예산	12
• 대한민국 식량안보특별법 (초안)	12
• 이사장 칼럼	15

이사장 인사말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COVID-19 등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국가의 식량안보를 지키는 일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 지난해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밀, 옥수수 및 식용유 등의 수급에 온 나라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최근 식품의 구매 형태가 매장에서 구매하는 오프라인(off-line)에서 온라인(on-line) 주문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고,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로 가정간편식 (HMR, home meal replacement)의 판매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되어 식품폐기물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비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으로 안전계수를 0.8~0.9로 늘려 설정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식량 증산을 돋는 GM 작물에 대한 대중의 막연한 거부감을 완화시킬 수 있는 기회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조사처리 식품에 대한 대중의 막연한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습니다. 식품 살균 등에 조사처리 방식을 적극 활용 시 식품의 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이 연장돼 식품의 불필요한 폐기물 양산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본 재단은 식량문제를 농업의 문제로만 보던 기존의 시각에서 벗어나 식품산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식품산업의 식량안보 기능을 육성하고 확대하는 일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재단의 지정연구과제로 ‘한국 식품산업의 세계화와 지구촌 식량영양안보를 위한 기여’를 다섯 분의 연구자가 각각 ‘음식역사를 통해 본 한국식품의 비교우위’(손홍석교수, 고려대학교), ‘한국 식품산업의 해외 진출 현황과 전망’(김정년이사,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 외식산업의 해외 진출 현황과 과제’(윤은옥부장, 한국외식산업경영연구원), ‘개발도상국의 식량영양안보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이효정대표, E&S 컨설팅), ‘북한의 식량사정과 남북협력의 현재와 미래’(권태진박사, GS&J)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6월 23일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대면으로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재단은 한국쌀가공식품협회로부터 연구과제를 수임받아 ‘국가 식량안보 법 제정안 모델 개발’을 연구하였으며 연구책임자는 박현진 교수(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그리고 연구위원으로 이광호 박사(前한국식품산업협회 상근부회장), 손홍석 교수(고려대 식품공학과), 추장철 박사(고려대 법과대학), 이철호 교수(고려대 명예교수)가 참여하였으며, 그 결과로 ‘대한민국 식량안보특별법 초안’ 최종보고서를 책자로 발행하여 관련기관에 기증하였습니다. 또한 재단은 도서출판 식안연에서 펴낸 ‘대체육 생산 현황과 전망’, ‘Korean Food and Foodways’(한국식품사연구 영문판), ‘한국 식품산업의 세계 비전’을 발간하였습니다.

식품산업과 외식산업은 국민의 안전한 생명을 영위하는데 제일 중요한 식량안보의 기간 산업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식량 위기시의 언론과 SNS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최근 미디어에서도 COVID-19 이후 일부 국가에서 식량가격이 폭등하여 식량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농업, 지속가능한 식생활에 대한 미디어와 소비자의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해외 농업을 통한 식량 확보에도 관심을 가질 때입니다. 식량위기는 식량 증산을 돋는 GM 작물에 대한 대중의 막연한 거부감을 완화시킬 수 있는 기회로도 활용 가능하며, 방사선 조사처리식품에 대한 대중의 막연한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습니다.

본 재단은 식품산업의 식량안보기능을 확대하고 과학기술의 역할과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일에 계속적으로 기여하려고 합니다. 계묘년 (癸卯年) 새해를 맞아 새 희망과 새 기운으로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바랍니다.

2023년 1월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사장 박 현 진

1. 임원 및 직원 명단



【고 문】



박관희 대선제분(주) 고문

펜실베니아대학교대학원 석사
서울상공회의소 제20대 대의원선출
경복고등학교 총동창회장
前)대선제분 대표이사 회장
前)(사)한국쌀가공식품협회 회장



이명철 서울대 의대 명예교수

서울대학교 대학원 내과학 석사, 박사
서울대학교병원 핵의학과 명예교수
제9대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이사장
前)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前)제24대 국군수도병원 병원장
現)한국파스퇴르연구소 이사장



김철하 CJ제일제당 前부회장

고려대학교 대학원 발효화학 석사
前)CJ제일제당 대표이사
前)CJ제일제당 사장
前)(재)식품안전상생협회 이사장
前)CJ제일제당 부회장
前)CJ기술원 원장

【명예이사장】



이철호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덴마크왕립수의농과대학 식품학 박사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명예교수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종신회원
미국식품공학회(IFT) Fellow
前)미국 MIT공과대학 연구원
前)국무총리실 식품안전정책위원
前)유엔식량농업기구(FAO) 컨설턴트

【이사장】



박현진 고려대학교 교수

미국 조지아대학교 식품공학과 박사
고려대 식품공학과 석사
미국 클렘슨대학교 포장공학과 겸임교수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
미국식품공학회(IFT) Fellow
前)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 학장
現)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교수

【이 사】



임정배 대상(주) 사장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졸업
대상(주) 대표이사
前)대상유럽 법인장
前)대상(주) 기획관리본부장
前)대상홀딩스 대표이사
前)대상(주) 전략기획본부장



최은석 CJ제일제당(주) 대표이사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최고지도자
인문학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수료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前)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前)CJ 주식회사 경영전략총괄
前)CJ대한통운 경영지원원 총괄
現)CJ제일제당(주) 대표이사



김명철 한국식품산업협회 상근부회장

美 Purdue 대학교 이학박사
서울대학교 식품공학 농학사
前)한국식품과학연구원장
前)농어촌상생포럼 부회장
現)규제심판부 규제심판관(국무총리실)
現)농어촌상생기금 운영위원회 위원
現)한국식품산업협회 상근부회장

【이 사】



서형수 영흥식품(주) 회장

경원대학교 경영대학원 마케팅 석사
 서울대학교 생명공학BIO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한국과학기술원 경영대학 KIST 최고
 경영자과정 수료
 (現)영흥식품(주) 회장
 (現)서룡산업식품 회장

【감 사】



이광호 한국식품산업협회 前부회장

미국 렛거스대학교 식품과학과 박사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학사
 (前)한국식품산업협회 상근부회장
 (前)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특임교수
 (前)식품의약품안전처 유해물질저감화
 추진단장
 (前)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
 평가원장



최낙현 (주)삼양사 대표이사

전북대 경영학과 졸업
 동국대 MBA(석) 졸업
 (前)삼양사 식품BU 영업총괄 상무
 (前)삼양사 식품BU장 부사장
 (現)(주)삼양사 식품그룹장
 (現)(주)삼양사 대표이사



손홍석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교수

고려대학교 생명공학과 박사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부 학사
 (前)동신대학교 한의예과 교수
 (現)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교수

【재단 사무국】



김미경 사무간사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석사

【출판부】



김유원 사장

고려대학교 철학과 졸업
 도서출판 유림문화사 설립
 한국실업검정교과서 이사
 미국도서관협회총회 한국대표
 한국청소년도서협의회 이사
 도서출판 유림문화사 대표

〈재단 자문위원〉



신동학

교수 (위원장)
 전북대
 명예교수



조재선

교수
 경희대
 명예교수



이군호

사장
 식품음료신문
 사장



박형희

회장
 한국외식정보
 대표



권대영

박사
 (전)한국식품
 연구원장



채수완

교수
 전북대
 의과대학



박용호

교수
 서울대
 수의과대학



김홍기

교수
 모스크바국립대
 초빙교수

2. 2022년도 사업내용



2-1. 이사회 개최

(1) 1차 정기이사회

- * 일시 : 2022년 4월 19일 오전 7:30
- * 장소 : 조선호텔, 나인스케이트
- * 회의 내용 : 2021년 업무보고 및 결산보고, 2022년 사업계획 심의, 2022년 운영예산 심의
- * 참석자 : 이철호 명예이사장, 박현진 이사장, 김명철, 서형수, 임정배, 최낙현, 최은석 이사
 이광호, 손홍석 감사
- * 임원 변경 : – 사임 : 송자량 이사
 - 중임 : 박현진, 임정배 이사
 - 신임 : 최낙현 이사 (삼양사 대표이사)



(2) 2차 정기이사회

- * 일시 : 2022년 11월 15일 오전 7:30
- * 장소 : 조선호텔, 나인스케이트
- * 참석자 : 이철호 명예이사장, 박현진 이사장, 김명철, 서형수, 임정배, 최낙현, 최은석 이사
- * 회의 내용 : 2022년 업무 및 가결산 보고, 2023년 사업계획 및 운영예산 심의, 재단 정관 세부사항 변경
- * 임원 변경 : – 중임 : 이철호 이사
 - 신임 : 김문수 이사 (한국쌀가공식품협회 회장)



2-2. 연구사업

(1) 2022년도 재단 연구과제

가. 지정 과제 – 한국 식품산업의 세계화와 지구촌 식량영양안보를 위한 기여

* 총괄연구책임자 : 박현진(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사장)

- (1) 음식역사를 통해 본 한국식품의 비교우위 (손홍석교수, 고려대학교)
 - (2) 한국 식품산업의 해외 진출 현황과 전망 (김정년이사, 한국식품산업협회)
 - (3) 한국 외식산업의 해외 진출 현황과 과제 (윤은우부장, 한국외식산업경영연구원)
 - (4) 개발도상국의 식량영양안보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 (이효정대표, E&S 컨설팅)
 - (5) 북한의 식량사정과 남북협력의 현재와 미래 (권태진박사, GS&J)

* 연구기간 : 2022년 1월 – 6월 (6개월 과제)

* 연구비 : 2,000만원(연구비, 세미나 개최비용)

* 2022년 6월 23일 '한국 식품산업의 세계 비전' 세미나 개최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

* 담행보 '한국 식품산업의 세계 비전' 출간 (10월 15일 발행)

나. 한국쌀가공식품협회 연구과제 수임 – 국가 식량안보법 제정안 모델 개발

* 연구책임자 : 박현진 교수(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 연구위원 : 이광호 박사(前한국식품산업협회 상근부회장), 손홍석 교수(고려대 식품공학과)

추장철 박사(고려대 법과대학), 이철호 교수(고려대 명예교수)

* 연구조원 : 차정민(고려대 식품공학과 대학원), 안아영(고려대 식품공학과 대학원)

김미경(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간사)

* 연구 기간 : 2022년 7월 25일 – 2022년 9월 30일

* 연구비 : 2,000만원

* '대한민국 식량안보특별법 초안' 발행

2-3. 학술회의

(1) 제27회 식량안보세미나

-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세계 식량위기 대응방안

* 일시 : 2022년 4월 26일(화)

* 장소 : ZOOM 활용 온라인 세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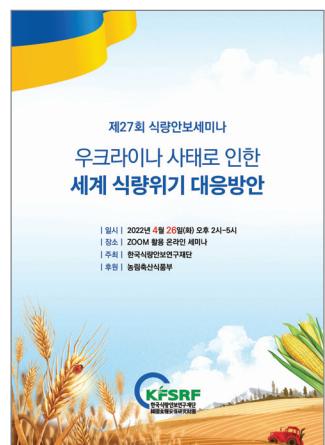
* 주최 :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 후원 : 농림축산식품부

* 박표자 : 박현진 김미수 전하영

* 토론자 : 이철호(좌장) 김정년 김영규 이군호 임정비 하명근

* 참석의원 : ZOOM 40여 명 접속 자료집 100부 제작 배포

* 자료집 : 농식품부 장차과 식약처장 등 80여 명에게 솔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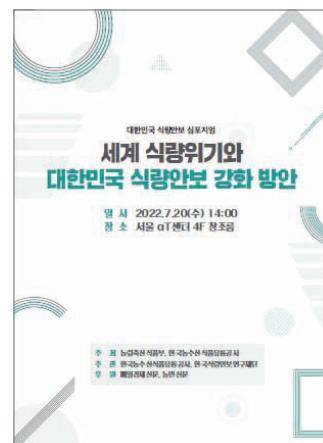
(2) 제28회 식량안보세미나 – 한국 식품산업의 세계 비전

- * 일시 : 2022년 6월 23일(목) 14:00~17:00
- *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
- * 주최 :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 * 후원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식품산업협회
- * 발표자 : 손홍석, 김정년, 윤은옥, 이효정, 권태진
- * 토론자 : 이철호(좌장), 신동화, 박용호, 원혜영, 채수완, 한정훈
- * 참석인원 : 40여 명, 자료집 100부 제작 배포
- * 자료집 : 농식품부 장차관, 식약처장 등 50여 명에게 송부



(3) 대한민국 식량안보 심포지엄 – 한국농수산유통공사와 공동주관

- * 일시 : 2022년 7월 20(수) 14:00~ 17:20
- * 장소 : 서울 aT센터 4층 창조룸
- * 주최 :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 주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 * 후원 : 매일경제신문, 농민신문
- * 발표자 : 김종진, 전한영, 한만우, 신동화, 박종민
- * 토론자 : 이철호(좌장), 이상현, 정혁훈, 곽상수, 김명철, 김학수
- * 참석인원 : 약 200명
- * 자료집 : aT에서 제작 배포.



(4) 식량안보간담회

가. 제24차 식량안보간담회

- * 주제 : '국가 식량안보법 제정안 모델개발 연구' 전문가 초청 간담회
- * 일시 : 2022년 9월 20일(수) 16:30~18:00
- * 참석자 : 이철호, 박현진, 박관희, 신동화, 이명철, 조재선, 권대영, 채수완, 김춘진,
이군호, 이종규, 신기태, 이광호, 손홍석, 추장철, 차정민, 안아영, 김미경
- * 장소 : 고려대학교 생명과학관(동관) 22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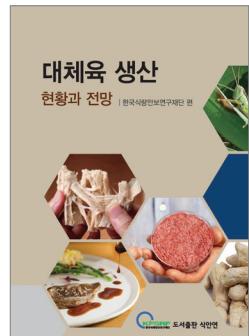


2-4. 저술 출판사업

(1) 단행본 (도서출판 식안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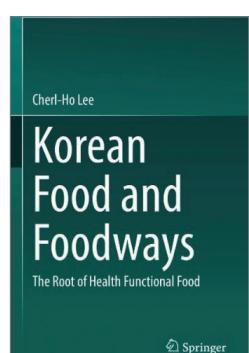
가. 대체육 생산 현황과 전망

- * 저자 :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편
- * 출판일 : 2022년 2월 28일
- * 출판부수 : 초판 500부
- * 기증 : 80여 명
- * 단체구입 : 대상(주) 100부



나. Korean Food and Foodways (한국식품사연구 영문판)

- * 저자 : 이철호
- * 출판사 : Springer Nature
- * 출판일 : 2022년 8월
- * 출판부수 : 초판 40부 구입(재단 임원 및 자문위원 기증)
- * 출판기념회 : 10월 17일(고대 교우회관), 30여 명 참석



다. 한국 식품산업의 세계비전

- * 저자 :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편
- * 출판일 : 2022년 10월 15일
- * 출판부수 : 초판 500부
- * 기증 : 60여 명
- * 단체구입 : (주)삼양사 30부, 대상(주) 100부
한국식품산업협회 80부



(2) 대한민국 식량안보특별법 초안

- * 저자 :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최종보고서
- * 발행 부수 : 1,000부
- * 기증 : 국회의원 전원, 농식품부 및 식약처 등 주요인사
한국쌀가공식품협회 회원사 등 800여 명
- * 한국쌀가공식품협회에서 제작비 지원



(3) 한국 생산성본부 범농협 통신연수 및 도서기반 원격교육 업무제휴



한국생산성본부(대표 안완기)는 2023년도 범농협 통신연수 과정에 '4차 산업혁명으로 보는 식량산업과 대체육 전망'을 개설하기로 하고, 도서출판 식인연에서 출판한 '4차산업혁명과 식량산업(2018)'과 '대체육 생산 현황과 전망(2022)'을 교재로 사용하기로 한국생산성본부와 저작물 사용권 계약을 체결하였다.

(4) 인터넷 월간 뉴스레터 발간

- 가) 뉴스레터 138호(2022년 1월) ~ 149호(2022년 12월) 발간, 홈페이지 게시
- 나) E-mail 메일링 리스트 3,000여 명에게 발송

(5) 홈페이지 관리운영

- 뉴스기사 285건, 추천도서 9건, 보고서 27건, 논문 4건, 발표/강의 자료 2건,
세미나 자료집 파일 4건, 동영상 4건 등

3. 2022년도 재무보고 (2022.01.01 ~ 2022.12.31)



(단위: 원)

수 입			지 출		
항목	내용	금액	항목	금액	
후 원 금	녹십초	10,000,000	인건비	28,360,750	
	대상	20,000,000	복리후생비	1,200,000	
	한국쌀가공식품협회	10,000,000	회의비(자문료 등)	4,468,166	
	삼양사	20,000,000	임대료(세미나)	520,000	
	CJ제일제당	20,000,000	통신비	268,970	
	영흥식품	10,000,000	세금과 공과금	2,402,010	
	이시호	1,000,000	4대 보험료	5,843,230	
	소계	91,000,000	유인물비	5,152,400	
	*박현진 (22년 재단사무실 임대료 기부)	3,354,000	홍보비(홈페이지&광고)	3,960,000	
	이자 수익	1,481,788	운영비(세무사)	4,000,000	
세미나 지원금	한국식품산업협회	10,000,000	운영비(DM발송)	2,126,760	
연구 용역비	한국쌀가공식품협회	20,000,000	운영비(기타)	13,865,222	
도서 판매 수익	식안연 발간책자	18,241,081	연구용역비	21,888,000	
합계		140,722,869	소계	94,055,508	
전년이월		8,622,633	출 판 사 업	인건비	600,000
총 계		149,345,502		인쇄비	20,113,200
				배본비	5,695,255
				도서구입비	5,034,588
				소계	31,443,043
				총 계	125,498,551

전년이월	8,622,633
수 입	140,722,869
지 출	125,498,551
퇴직적립금	30,000,000
출연금	100,000,000
이월금	23,846,951

4. 2023년도 사업계획



4-1 연구사업

(1) 식량안보를 위한 작물 이용 확대 방안 (지정과제)

* 연구 총괄책임자 (이철호 재단 명예이사장, 고려대 교수)

1) 쌀의 수요 창출과 가격 안정화 방안 (과제책임자: 박현진 교수,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사장)

2) 보리의 증산을 위한 정책 방향과 수요 창출 방안 (과제책임자: 이미자 박사, 국립식량과학원)

3) 귀리의 식품 기능성과 이용확대 방안 (과제책임자: 허철성 교수, 서울대학교 국제농업기술대학원)

4) 콩의 자급률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 (과제책임자: 문중경 박사, 국립식량과학원)

5) 고구마의 증산과 이용 확대를 위한 방안 (과제책임자: 김선형 교수, 서울시립대 환경원예학과)

* 연구기간: 2023년 1월 – 2023년 6월

* 연구비: 2,000만원(연구비, 세미나 개최비용)

* 2023년 6월 연구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관련 단행본 발간

4-2 세미나 및 학술대회 개최

(1) 제29회 식량안보세미나 – 식량안보를 위한 작물 이용 확대 방안

* 일시 : 2023년 5월

* 장소 : 미정

* 주최 :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농림축산식품부(예정)

* 후원 : 한국쌀가공식품협회(예정)

(2) 식량안보간담회

* 수시 개최

4-3 출판사업

(1) 한국 근현대 식품사

* 저자 : 이철호

* 출판 예정일 : 2023년 2월

(2) 식량안보를 위한 작물 이용 확대 방안

* 저자 :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편

* 출판 예정일 : 2023년 9월

5. 2023년도 예산



5-1 재단 운영비

(단위: 원)

(1) 인건비	45,000,000원
* 사무원	31,200,000원
* 연구원 및 기타 인건비	13,800,000원
(2) 연구사업 지원	20,000,000원
* 식량안보를 위한 작물 이용 확대 방안	20,000,000원
(3) 저술지원사업	20,000,000원
* 한국 근현대 식품사	10,000,000원
* 식량안보를 위한 작물 이용 확대 방안	5,000,000원
* 출판협동조합 관리비	5,000,000원
(4) 세미나 및 포럼 개최	5,500,000원
* 식량안보세미나(1회)	5,000,000원
* 식량안보간담회(2회)	500,000원
(5) 회의비/사무실 운영비	23,000,000원
* 회의비(이사회, 자문위원회 등)	3,000,000원
* 사무실 운영비(임대료, 관리비, 기타)	10,000,000원
* 홍보, 광고비(홈페이지 운영, 기타)	5,000,000원
* 복리후생비	3,000,000원
* 활동비	2,000,000원
합 계	113,500,000원

6. 대한민국 식량안보특별법 (초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위한 국민의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최악의 식량위기는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국가와 국민이 인식하고, 이의 방지를 위한 국민생활의 안전향상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식량안보란” 식량위기 상황을 대응하기 위하여 식량을 국내적으로 생산하거나, 국외에서 안정적으로 구매하여 국민의 질적·양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 공급 할 수 있는 식량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식량안보의 가

측성을 위해서 가용성·접근성·영양·효율성·안정성을 그 지표로 한다.

- “곡물 자급률”이란 쌀, 밀, 콩, 옥수수 자급률을 말한다.
- “식용곡물 자급률”이란 곡물자급률에서 사료곡물 자급률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 “식량전체 자급률”이란 공급되는 모든 식량을 열량(칼로리)으로 환산한 식량에너지 자급률을 말하며, 열량자급률이란 국민이 섭취하는 전체 식품 중 열량 중 국내산 식품으로 충당되는 열량의 비율을 말한다.
- “통일미”란 남북한 간의 통일로 말미암은 급격한 쌀 공급 부족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부가 비축하는 쌀을 말한다.
- “유전자변형 생물체”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

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7. “식량위기”란 평상시에 비하여 그 상태에 비하여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정세의 급격한 변화 또는 어떤 사상의 결정적이고 중대한 단계를 말한다.
8. “취약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9. “소비기한”이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한다.
10. “푸드테크”는 음식과 기술을 통한 식품 등의 산업에 4차 산업 기술을 적용하여 새로운 형태의 산업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술을 말한다.
11. “식량콤비나트”는 식량을 확보하고 상시 비축·관리하는 장소를 말한다.
12. “MMA”란 WTO협정에 따른 최소시장접근 물량 쌀을 말한다.

제2장 식량안보를 위한 국가의 책무

제3조(국가의 의무)

- ① 정부는 국내·국제적 식량공급 상황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식량위기에 대비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국제곡물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경보단계별 ‘위기대응 행동지침(매뉴얼)’을 공지하여야 한다.
- ③ 정부는 제1항과 제2항의 실행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주무부 장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과 상시적인 소통채널을 구축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식량생산 잠재력 확충)

- ① 정부는 식량생산을 확충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농지전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일정수준의 경지면적의 한계점을 지정하고, 일정수준의 농지면적과 식량파종면적을 보장하여야 한다.
- ③ 정부는 농산물 가격지지정책을 강화하여 농민의 생산의욕을 고취하여야 한다.
- ④ 정부는 주요 곡물(쌀, 보리, 밀, 옥수수, 콩)의 증산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 ⑤ 정부는 사료곡물의 국산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곡물비축시설)

- ① 정부는 수입곡물의 하역을 위한 곡물전용 하역시설과 일정수준의 곡물을 비축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식량의 수입과 가공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식량콤비나트 건설을 지원한다.
- ③ 정부는 민간기업이 곡물저장시설 등 제1항과 제2항의 시설을 구축할 경우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정부는 민간기업이 해외곡물 터미널을 인수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저소득 취약계층의 양곡지원)

- ① 정부는 취약계층의 안전과 복지를 위하여 양곡(쌀)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 ② 취약계층에게 1인당 월 10kg의 쌀 또는 쌀 가공식품(월 10kg의 쌀 상당액)을 무상 지원한다.
- ③ 제2항의 지원방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고려하여 그 내용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취약계층 쌀 무상지원에 필요한 재원은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한다.

제7조(통일미 비축)

- ① 정부는 남북통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일정 수준의 통일미를 비축하여야 한다.
- ② 통일미 비축은 120만 톤으로 하되, 연 60만 톤의 쌀을 2년 간 보관한 뒤 쌀 가공산업에 방출한다.
- ③ 연 60만 톤의 쌀은 MMA 수입쌀 40만 톤과 신곡 20만 톤을 수매하여 충당한다.
- ④ 통일미 비축에 필요한 재원은 통일부의 예산으로 한다.
- ⑤ 제2항과 제3항의 보관방법, 쌀 가공산업에 방출방법, 수매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식량비축물량)

- ① 정부는 식량비축을 쌀, 밀, 콩, 옥수수 등으로 나누어 비축 물량을 구별하되, 전체 국민이 6개월 이상 먹을 수 있는 양의 식용곡물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식품기업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안정적인 재료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보관비용의 일부를 지

원할 수 있다.

- ③ 식품기업의 보관방법, 보관비용의 지원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식품산업 푸드테크 지원 육성)

- ① 정부는 식량안보 확보 차원에서 국내 식품산업을 지원 육성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해외원조개발사업 등에 민간 식품기업을 참여시켜 해외농업협력을 통한 식품원료 확보를 지원하여야 하며, 참여기업, 지원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정부는 한국형 푸드테크의 기술개발을 통해 한국 식품산업의 해외공급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생명공학작물의 이용확대)

- ① 정부는 미래 식량자원 확보를 위해 생명공학작물의 이용을 도모하고 소비자 수용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 홍보를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생명공학 기술개발 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예산을 확충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③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바이오 안전성 위원회는 위의 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소비자 보호단체(수탁 민간단체를 포함한다) 등과 지속적인 심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식량안보 통계지표) 정부는 식량안보와 지속 가능 한 식품의 공급을 위하여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의 계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지표는 곡물 자급률, 열량자급률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제3장 식량안보 위원회

제12조(식량안보위원회)

- ① 식량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식량안보위원회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식량안보제도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2. 식량안보제도 관련 주요 계획

3. 식량안보제도의 평가 및 개선

4. 식량안보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따른 우선순위
5.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주요 식량안보정책
6. 식량안보를 위한 비용 부담
7. 식량안보 재정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8. 식량안보 전달체계 운영 및 개선
9.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③ 위원장은 제2항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조정한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식량안보제도를 운영 또는 개선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회의 구성 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구성시 식량안보문제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10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된단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을 포함시킬 수 있다.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 기간으로 한다.
-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⑥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⑦ 실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무위원회의 의결로써 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 ⑧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식량안보보장국을 둔다.
- ⑨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실무위원회, 분야별 전문위원회, 식량안보보장국의 구성·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식량안보 재정추계 및 식량안보통계 등에 대한 민간위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른 식량안보통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자료의 수집·조사 및 분석에 관한 업무 등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제15조(소비자의 역할)

- ① 모든 국민은 공급되는 식량이 국가안보와 직결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장관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와 관련한 협의체를 운영하여야 한다.
- ③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소비기한 최소 48시간 이전에 이를 수거해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구호단체들과 협약을 맺어야 한다.
- ④ 정부는 제1항의 계몽·지도를 민간기구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모든 국민은 동영상을 통해서 무분별하게 방영되는 음식물 관련 영상콘텐츠의 유포로 말미암아, 음식물이 낭비되는 행위를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정보의 공개) 정부는 식량안보에 관해 국민이 필요 한 정보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고, 이를 홍보하여야 한다.

제4장 벌칙

제17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1. 제5조의 위반행위를 하여 보조금을 받은 자
2. 제8조의 위반행위를 하여 보조금을 받은 자
3. 제9조의 위반행위를 하여 보조금을 받은 자

제18조(벌칙) 제6조에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한다.

제1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7조, 제1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7. 이사장 칼럼



GMO 완전표시제 망령 언제 사라지나 – 식품음료신문 2022. 11. 22

GMO 유래 물질 제거된 경우에도 표시 의무화?…함정

non-GMO로 식품 제조 땐 원료 비용 1.5~2배 상승

‘식품 인플레이션’ 초래…역대 정부 공약하고도 못 지켜

지난 11월 9일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센터장 김기철)가 주최한 GMO 세미나가 열렸다. 기후변화, 코로나19 장기화, 국

제분쟁 등으로 발생한 식량 위기와 관련하여 생명공학 작물의 사용에 관한 찬반양론의 대화를 위한 모임이었다. 생명공학 작물의 사용을 찬성하는 과학계와 식품산업계의 의견과 환경·시민단체들의 반대의견이 좁혀질 줄 모르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GMO 완전표시제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발언은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GMO의 안전성에 대한 논쟁은 이미 끝난 사안이다. 지난 25년간 우리는 GMO를 먹고 있으며 아무런 안전성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노벨상 수상자 모임을 비롯한 세계 과학기술계가 생명공학 작물의 안전성을 확인하였고, 이를 근거로 각 나라들은 GMO 재배를 승인하고 수입하여 사용하도록 허가한 사항이다. 유럽연합이 GMO 사용을 반대하는 것은 무역자유화 시대에 그들의 농업을 보호할 무역장벽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라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GMO 안전성 논란이 끝나자 반대론자들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내세워 GMO 완전표시제를 주장하고 있다. 유전자변형 농산물에 대한 표시 의무화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다만 가공하여 GMO에서 유래하는 유전자나 단백질이 제거된 식품 원료는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일본 등 대부분의 나라들이 채택하고 있는 기준이다.

우리나라의 일부 반대 단체들이 집요하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GMO 유래 물질이 제거된 경우에도 표시를 의무화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요구가 일견 간단하고 당연해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단히 위험하고 악의적인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GMO 유래 물질이 제거된 식품 원료의 대표적인 예는 간장, 전분당, 식용유이다. 그런데 이들 원료가 들어가지 않은 식품은 거의 없다. GMO 완전표시제가 시행되면 시장에서 판매되는 거의 모든 식품이 GMO 표시를 해야 한다. 그동안 GMO에 대한 가짜뉴스와 괴담을 방치해온 우리 사회에서 모든 식품에 GMO 표시가 붙으면 ‘먹을 게 없다’라는 소비자들의 우려로 광우병 대란을 능가하는 식품 대란이 일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이런 이유로 박근혜 정부도, GMO 완전표시제를 공약했던 문재인 정부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최근 문제의 심각성을 감지한 반대 단체들은 최종 제품에는 표시하지 않더라도 중간 원료인 간장, 전분당, 식용유만이라도 표시 의무화하자고 제안한다. 그러나 이것은 알짜한 조삼모사의 술수에 불과하다. 이들 중간 원료가 표시되면 소비자들은 이들 원료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을 찾게 되고 결국 최종 제품에 표시할 것을 요구하게 된다. 식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여 비싼 가격을 주고 non-GMO 원료를 경쟁적으로 구입하게 된다. non-GMO 원료는 희소성 때문에 GMO 원료보다 20~30% 비싸고, 운송 및 가공과정에서 분리 관리를 해야 하므로 최종 원료비용이 1.5~2배 높아진다. 결과적으로 식품 가격이 20~30% 상승하게 된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식품 원료가격이 상승하여 소비자 식품 가격이 10~20% 오른 것에 비하면 GMO 완전표시제에 의한 인플레이션 효과는 훨씬 클 것으로 전망된다. 과연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식품 원료에 완전표시제를 하여 이러한 위험과 비용을 들여야 할 것인지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

오늘의 이런 사태가 되도록 방치한 정부와 과학계의 책임이 크다. GMO에 대한 터무니없는 괴담들이 퍼질 때 그 진위를 철저히 밝혀 국민의 불필요한 불안감과 불신을 잠재웠어야 했다. 이제라도 GMO 괴담을 뿐이라는 반사회적 행동을 차단하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일에 정부와 과학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GMO 완전표시제는 소비자들이 GMO의 진리를 알고 받아들일 때 해도 늦지 않다. 불필요한 일에 국력을 낭비하기에는 오늘의 시대 상황이 너무 긴박하고 어려워지고 있다.

한(韓)민족 음식문화의 뿌리를 찾아서

- 한국식품사연구 국문 및 영문판 출판경위

이철호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명예이사장,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필자는 대학에서 식품공학을 가르치면서 우리 음식의 역사와 과학성을 연구하고 세계에 알리는 일에 관심이 컸다. 한국 음식의 역사에 관한 선배 연구자들의 글을 읽으면서 늘 생각했던 것이 우리의 음식을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고 일본이나 중국의 자료에 너무 많이 의존하는 것이 아쉬웠다. 이러한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고고학 발굴 자료와 동북아 고대사를 공부해야한다고 생각했다.

1998년 일본 경도대학에 초빙교수로 6개월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요구하는 것이 우리 음식문화와 역사에 대한 강연을 2회에 걸쳐하고 그 내용을 보고서로 남겨달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일본으로 떠날 때 한국 고대사와 고고학 자료를 한 보따리 싸들고 갔다. 이곳에서 2편의 논문을 썼다.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구석기시대 식생활 환경’과 ‘동북아시아 원시토기문화의 특징과 식품사적 중요성’이 그것이다. 특히 연세대 박물관의 신숙정 박사가 쓴 한반도 조개무덤(貝塚)에서 발굴된 원시 토기에 대한 논문들은 식품학자의 눈에 인류 최초의 생물반응기(bioreactor)를 보여주었다. 여기에 서양의 구이(roasting)문화와 대별되는 동북아의 끓임(boiling)문화가 있었고, 한민족의 탕(湯)·찌개문화와 발효문화의 기원을 찾을 수 있었다. 이 논문 원고를 한국식문화학회지에 투고했는데 심사결과가 ‘제재 불가’로 나왔다. 알아보니 학회 회원들 중에는 심사할 사람이 없어 사학계 교수들에게 요청했다는 것이다. 강단 사학계 사람들에게는 이단의 넋두리로 보였던 것이다. 할 수 없어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의 홍일식 교수에게 가져갔는데 ‘민족문화연구’ 31호(1998)와 32호(1999)에 2년에 걸쳐 실어주었다.

2010년 정년퇴임 후에 그동안 모아두었던 자료를 정리하여 우리 음식문화에 대한 책을 집필하기로 했다. 원시토기문화시대(기원전 1만 년~5천 년)와 역사시대(기원전 1천 년 이후) 사이의 신석기 중기와 국가형성기(기원전 3천 년경)의 우리 음식에 대한 자료가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우리 음식문화의 맥을 어떻게 연결할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마침 최근의 한국고대사 연구 자료로 단국대 윤내현 교수의 ‘고조선연구’ 상·하권(2015)과 서울대 사회학과 신용하 교수의 ‘고조선문명의 사회사(2018)’에서 그 실마리를 찾았다. 고조선을 창설한 동이족(東夷族, Eastern Archers)의 쌀(단립벼)과 콩을 주식으로 하는 음식문화가 지금 한반도에 거주하는 한(韓)민족의 음식문화임을 고증할 수 있었다.

이렇게 쓰여진 ‘한국식품사 연구’ 집필 원고를 고려대학교 출판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놀랍게도 ‘출판 불가’ 통보를 받았다. 고려대학교 출판위원회의 2차에 걸친 논의에서 불가판정이 확정되었다. 출판부 직원의 말에 의하면 보기 드물게 격렬한 논쟁이 있었지만 결시반대하는 몇 분의 위원이 있어 어쩔 수 없었다고 하였다. 그래서 필자가 운영하는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의 도서출판 식안연에서 출판(2021)하게 된 것이다.

이 책은 집필 초기부터 영문판을 내기로 생각하고 쓴 책이다. 마침 첫째 딸 이정실 박사와 미국 UCLA 대학원에서 동문수학한 Diana Evans씨가 번역을 맡기로 했다. 이분은 미국 하버드 대학원에서 동아시아언어학 특히 한국문학을 전공한 분으로 자녀를 키우며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었다.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이 번역비 2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하고 2년여에 걸친 번역 작업을 하였다. 번역자의 초고에서 오역이나 집필자의 의도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부분을 수정하기를 2~3차례 거듭하면서 어렵게 번역하였다. 번역작업을 하면서 번역비 2만 달러가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도 찾기 어려운 국내외 고전문학의 출처와 그 내용을 인터넷으로 확인하고 내가 쓴 원고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었다. 그분의 중국어 실력으로 중국의 책명, 저자명, 지명 등을 중국어 발음(pinyin)으로 표기할 수 있었다. 어려운 한국음식의 영문표기와 음식 이름을 영문으로 풀어서 영어권 사람들이 그 의미를 알 수 있도록 표기한 것은 국내 연구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내용을

책의 '번역자 노트(Translator's Note)'에 잘 기술하였다.

번역된 원고가 4장까지 완성되었을 때 영국의 CRC Press에 출판제안서를 내었으나 또다시 '제재 불가' 통지를 받았다. 심사 평을 읽어보니 저자를 완전히 국수주의자로 몰아붙이고 형편없는 내용이라고 악평하였다. 아마도 중국계 학자인 것 같았다. 크게 실망하고 의기소침하던 중에 한국식품과학회 영문지를 출판하는 Springer사가 한국에 지사를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Springer Nature Korea에 '한국식품사연구' 한글판과 번역이 완성된 원고를 보냈다. 보낸지 얼마 되지 않아 출판이 채택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다. 한국지사의 편집진에 참으로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국제적인 출판사에서 영문으로 책을 출판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나는 참고문헌 인용에 한국인의 이름을 성(姓)씨만 기술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서양 사람들의 이름은 개인이름, 중간이름, 성씨를 나열하는 긴 구조이기 때문에 성씨와 연도만을 표시한다. 그러나 한국인의 성명은 3음절로 짧고, 특히 한국에는 김씨와 이씨가 태반이므로 성씨와 연도만을 표시하면 구분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나의 원고에는 이름 석자를 전부 썼고 우리식대로 성씨를 먼저 쓰고 이름을 기술하였다. Springer의 편집과정에서 이게 문제를 일으켰다. 편집을 맡은 인도인 에디터가 성씨를 전부 지우고 이름에다 연도를 붙인 것이다. 참고문헌 목록에도 영어식으로 성씨와 이름을 뒤바꾸어 놓았다. 통상 저자 초교는 한 번만 보는데 내 책의 경우에는 2회의 교정을 보았지만 완전치 않아 수없이 교신했다. 한국식품사연구 영문판 'Korean Food and Foodways (2022)'는 이런 우여곡절 끝에 출판된 것이다.

음식은 인류에게 필요불가결한 물질이고 인류의 역사는 식량을 획득하고 음식을 장만하는 일에서 시작되었다. 음식의 역사를 알면 개인이나 집단의 역사를 알 수 있다. 특히 통일신라 이후 남한주에 있는 국토의 대부분을 잃고 한반도에 갇혀 중국의 속국으로 전락하고 한때 일본의 침략으로 국권마저 잃어 찬란했던 민족의 역사를 잊고 살아가는 오늘의 한국인에게 식품사 연구는 민족의 자긍심을 되찾을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도를 모색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어렵지만 이러한 노력들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란다.



〈단체구입 발송처〉

대상주)에서 'Korean Food and Foodways'를 단체 구입하여 재외 한국문화원에 기증.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동경, 오사카), 중국(북경, 상해, 홍콩), 태국, 필리핀, 카자흐스탄, 호주, 미국(LA, 뉴욕, 워싱턴),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캐나다, 독일, 러시아, 벨기에, 스페인, 이탈리아, 영국, 폴란드, 프랑스, 헝가리,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튜르키예공화국)

한국쌀가공식품협회에서 영문판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기증.

(장관, 차관, 차관보, 대변인, 감사관, 기획조정실장, 식량정책실장, 식량정책관, 식품산업 정책관 등 9명)

책의 시공(時空)을 초월한 마력(魔力) – 식품음료신문 2022.04.12

식품 고서 선조의 숨결과 품격

필자가 아직 40대의 젊은 교수로 고려대학교 한국 식문화 영상화 사업에 매진하고 있을 때 명지대학교 가정학과에서 정년퇴임을 앞둔 강인희 교수님이 나를 플라자호텔에서 점심을 사주시면서 본인이 저술한 '한국식생활사(1978)'를 건네주셨다. 그때 나는 식품공학을 강의하고 단백질 유변학, 식품 익스트루전기술 등을 연구하느라 그 책을 자세히 읽지 못했다.

30여 년이 지나서 정년퇴임을 하고 그분의 책을 다시 읽으며 우리나라 어느 식품사 책보다 뛰어난 명저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우리 음식의 역사와 문화 속에 담겨있는 철학과 사상, 그리고 사회적 배경을 심도 있게 기술한 책이었다.

최근 '한국 근현대 식품사'를 집필하면서 서가에 꽂혀 있는 '한국인의 식생활 100년 평가(1998)'를 열어봤다. 이 책은 아내의 동료 교수가 집사람에게 중정한 것으로 연세대학교 이기열 교수님과 그 제자들이 함께 저술한 대작으로 우리집 서가에 오랫동안 꽂혀 있었는데,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글에 필요한 자료가 가득 들어 있었다.

젊은 시절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한적과에 들어가서 먼지가 하얗게 덮인 고서들을 뒤적이며 '홍만선의 산림경제' '서유구의 임원십육지' 등 고전을 펼쳐보며 적혀있는 한문의 채반도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어두컴컴한 서가에서 수백 년을 기다리다 나를 만난 그분들의 숨결과 영감을 느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그래서 우리 고전을 번역한 책들을 귀하게 여기며 모아왔다.

식품사학계의 원로 선배이신 한양대 이성우 교수님, 카톨릭대 장지현 교수님, 중앙대 윤서석 교수님 등이 남기신 서적들은 후학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며, 중국에 억눌리고 일본에 의해 왜곡된 우리의 역사를 바로잡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이성우 교수님의 '한국식경대전'은 내가 귀하게 여기는 책 중의 하나이다. 그 책에 우리 고전의 서문들을 번역한 것을 읽어 보면 실로 명문장이라는 감탄이 절로 나오고 조선조 선비들의 품격을 느끼게 된다.

근대 식품 저술에도 명작 다수

나는 1994년 한 학기 동안 미국 워싱턴D.C.의 스미스소니언 연구소(Smithsonian Institution) 미국역사박물관(Museum of American History)에서 우리나라 개화기의 외국 문물 유입에 의한 우리 식생활의 변화를 조사한 적이 있다. 그때 박물관 사서 테리 샤라(Terry Sharrer) 박사 연구실에서 40여 권의 한국에 관한 견문록을 찾아 식품에 관한 부분을 복사해 가져왔다. 정년퇴임을 하고도 10여 년이 지난 지금 그 자료들을 정리하면서 150년 전 조선인의 생활상을 보고 있는 것이다.

책의 가치는 지금 당장보다도 세월이 지난 후에 그 진가를 체험하게 된다. '해리포터'나 '더 크라운' 같은 드라마에서 벽을 가득 채운 서가에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 책을 찾는 젊은이들의 모습은 극적으로 표현된 것이고, 사실 우리는 매일의 생활에서 책의 마법을 경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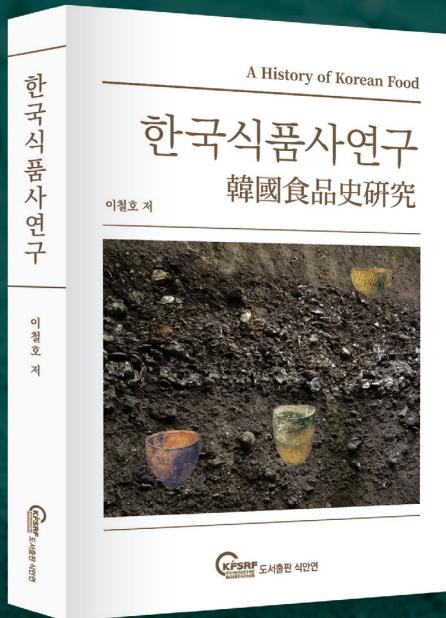
나는 지난 10여 년간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을 운영하면서 우리나라 식량문제에 관한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뜯어 많은 서적을 출판했다. 혹자는 누가 본다고 그리 써대느냐고 핀잔을 줄 수도 있다. 그러나 먼 훗날 누군가가 어느 서가에서 그 책을 꺼내 보고 "그 시대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이런 노력을 했구나"하고 감탄할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책을 쓴다. 그래서 심혈을 기울여 책을 쓴다.

디지털 자료엔 없는 감동

나는 중년의 나이에 고려대 동료 교수들과 강진에 있는 다산초당을 찾은 적이 있다. 다산이 18년간의 유배 생활로 글 쓸 시간을 갖지 않았더라면 누가 지금 그를 기억하랴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애민 사상에 기초한 그의 방대한 실학 저술은 암울한 조선조 역사에 한줄기 서광을 비추고 있다.

디지털 시대에 신문이나 책이 밀려나고 있다. 젊은 세대에게는 디지털 책이 이미 대세가 됐다. 그러나 책의 가치는 영원하다. 책은 디지털 자료가 주지 못하는 시공을 초월하는 마법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준다. 책은 초상화처럼 우리 옆에서 그 감동적인 해후를 기다리고 있다.

『한국식품사연구』 출판



이 철 호 교수 著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명예이사장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종신회원

목 차

1. 구석기시대의 동북아 식생활 환경
2. 한반도 원시토기문화의 식품사적 의의
3. 농업의 시작과 동북아 신석기 농경문화
4. 동북아 국가형성기의 한민족 음식문화
5. 역사시대의 음식문화 – 떡과 한과
6. 한반도의 두장(豆醬)문화
7. 김치와 젓갈 제조사
8. 음청류의 발달과 특색
9. 한국 전통술의 역사와 제조기술
10. 동의학 섭생이론의 발전
11. 지난 1세기 동안 한국인의 식량·영양 상태의 변화
12. 21세기 동·서양 음식문화의 조화

도서출판 식안연(食安研)

438 페이지(색인 포함)

ISBN 979-11-86396-68-1

정가 30,000원(단체구입 30% 할인)

주문전화 02-929-2751

이메일 foodsecurity@foodsecurity.or.kr

이 책은 서양보다는 100여 년, 일본이나 중국보다는 반세기 늦게 1960년대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시작된 우리나라 고고학 발굴과 최근의 한국 고대사 연구 성과들을 참고하여 역사시대 이전의 한국음식의 원류를 찾으려고 노력했다.

1만 년 전부터 한반도의 토기문화에서 시작된 음식문화가 한민족의 영욕의 세월 동안 어떻게 성장했으며 다가오는 21세기의 세계 문명에 어떻게 기여할지를 예측했다.

『한국식품사연구』 영문판 Korean Food and Foodways가
Springer Nature에서 출판되었습니다

도서출판 식안연 출판현황

2022년 12월 현재

도서명	저자	초판년도	발행부수(판수)	정가(원)	현재재고
음식오케스트라	이철호	2012	1,000	8,000	91
식량전쟁		2012	2,000(2쇄)	12,800	12
FOOD WAR 2030		2013	500	20,000	89
식품산업 한식세계화에 날개 달다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편	2012	2,000	25,000	253
한반도 통일과 식량안보 Korea Unification and Food Security	이철호, 문현팔, 김세권 김용택, 박태균, 권익부	2012	1,500(2쇄)	16,000	25
과학이 보인다		2015	500	25,000	35
선진국의 조건 식량자급	양재승	2013	2,100(개정판)	17,000	275
나트륨, 건강 그리고 맛	이숙종, 이철호	2014	1,800(2쇄)	15,000	305
건강지킴이 보리의 재발견		2015	3,000(2쇄)	8,000	490
GMO 바로알기	신동화, 김영수, 최재성	2015	1,000	8,000	574
쌀의 혁명	박수철, 김해영, 이철호	2015	8,500(5쇄)	12,000	378
광복70년 인생70년	이철호, 이숙종, 김미령	2015	1,000	10,000	40
식량낭비 줄이기	이철호	2015	1,000	12,000	50
목소리와 견해	채희정, 이숙종, 이철호	2016	1,500(2쇄)	12,000	435
한·중·일 식량정책 비교	Navarro M.J.	2016	1,500	12,000	216
콩 스토리텔링	한국콩박물관건립 추진위원회	2017	800	20,000	400
식량생산 제고를 위한 신(新육)종기술	한지학, 정민	2017	500	12,000	174
21세기 구원투수: 고구마	곽상수, 박성철, 이준설	2017	1,000(2쇄)	12,000	270
세계 곡물시장과 한국의 식량안보	성명환, 오정규, 김민수 임호상, 이철호	2018	800(3쇄)	18,000	221
4차 산업혁명과 식량산업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2018	1,000	16,000	372
Yes to GMOs 생명공학기술의 진실	Borut Bohanec & Miššo Alkalaj	2018	2,000	12,000	102
건강100세 장수식품이야기	박상철, 이미숙, 이철호 김경철, 신동화, 박현진 권대영, 채수완	2019	1,500	18,000	53
요셉의 지혜 한반도 식량비축 계획	이철호, 위남량, 최지현 임정빈, 안병일	2019	1,000(2쇄)	16,000	89
비만과의 전쟁	이철호	2019	1,100(2쇄)	12,000	19
식품산업과 식량안보	박현진, 김덕호, 권오란 김현옥, 박태균, 이철호	2019	1,200(3쇄)	18,000	217
알기쉬운 방사능 · 방사선 & 식품안전	권중호	2020	500	16,000	18
식품미생물학사전	하덕모	2020	300	30,000	6
국가비상시 식량안보계획	이철호, 최지현, 박성진 이남택, 송성완, 박태균	2021	1,000(초판)	18,000	58
한국의 발효식품 – 역사, 문화 그리고 가공기술	신동화 편저	2021	1,000(2쇄)	20,000	25
식품위생안전법규와 제도	전은숙	2021	1,000(2쇄)	18,000	433
한국식품사연구	이철호	2021	1,000(2쇄)	30,000	380
대체육 생산 현황과 전망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편	2022	500(초판)	22,000	118
한국 식품산업의 세계 비전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편	2022	500(초판)	27,000	138

www.foodsecurity.or.kr

KFSRF 한국식량안보 연구재단

제단소개 연구지원사업 출판사업 국민운동 소개 세미나 자료실 동영상 갤러리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공지사항 바로가기](#) [제32차 KCH 포럼 세미나스케줄](#)

[twitter](#)

재단소개
한국 식량안보의 문제점과 개방방안을 제시하여 종합적인 식량안보정책 구성을 위하여 기록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합니다.

식량안방이기 국민운동
[바로가기](#)

도시 식 안 연
상/답/문/의/전/화
궁금하신 모든 것은 친절히 답변해드립니다.
02.929.2751
FAX 02.927.5201

농림축산식품부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생명과학관(동관) 109A호 | 02841
COPYRIGHT © 2010 FOOD SECURITY ALL RIGHT RESERVED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02841)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생명과학관(동관)109A
TEL: 02-929-2751 FAX: 02-927-5201 E-mail: foodsecurity@foodsecurity.or.kr